‘바람아 멈추어 다오’… 강풍에 알파인스키 연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악화로 이틀째 미뤄져 선수들 ‘울상’
조직위 “안전이 최우선… 일정 문제없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일정이 궂은 날씨로 인해 이틀째 연기됐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스키연맹(FIS)과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 알파인스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경기를 15일로 미룬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선수 출발점의 기온은 영하 18.9도, 풍속은 초속 9m였다. 경기장을 찾은 프랑스 방송국 해설자 알판드는 “선수 때도 이런 날씨는 별로 겪어보지 못했다”면서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바람에 내동댕이쳐졌다. 경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다.

연이은 기상 악화로 경기가 이틀 연속 연기되자 선수들은 울상이다. 지난 11일 정선 알파인스키장에서 예정돼 있던 남자 활강 경기도 15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날 경기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한 선수들은 생각지 못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4년 소치 대회 활강 동메달리스트인 라라 구트(스위스)는 자신의 SNS에 “대자연이 오늘은 아니라고 한다”는 글을 남기며 아쉬워 했다.

올림픽 데뷔를 앞둔 북한의 김련향과 마다가스카르의 첫 동계올림픽 선수 미알리티아나 클레어, 한국의 강영서와 김소희 역시 발길을 돌렸다. 클레어는 자신의 SNS에 “바람 때문에 경기가 취소 됐다. 경기하기엔 위험한 날씨”라는 글과 함께 울상 짓는 사진을 게재했다.

남자 활강, 여자 대회전이 차례로 미뤄지면서 당초 15일로 잡혀있던 남자 슈퍼대회전도 하루 뒤인 16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왔으나 조직위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의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한 성백유 조직위 대변인은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예비일이 있으니 대회는 충분히 가능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경기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강원도 용평 알파인경기장에서 예정됐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대회전 여자부 경기가 강풍으로 연기된 12일 경기 스로프의 기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강원 평창의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이 강풍에 취소되자 경기 관계자들이 스키 기문을 철수시키고 있다. /뉴시스

미뤄진 경기 일정 관람·환불 되나요?

연기된 날짜에 그대로 관람 가능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평창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경기가 15일로 연기됐다. 남자 활강에 이어 벌써 이틀째 경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일정마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상 악화라는 변수에 관람객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기 관람, 티켓 환불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조직위 측은 12일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연기 소식을 알리면서 경기 티켓은 관람객의 소유임을 명확히 했다.

환불은 대회 입장권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티켓 모두 이 사이트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2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구매 티켓의 경우 웹사이트 신청만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구매 티켓은 메인티켓센터와 공항 등에 입장권 실물을 제출해도 환불된다.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불 신청을 한 뒤 신청서와 실물을 조직위 입장권부 사무실(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018)로 내달 9일까지 보내면 된다. /김민서 기자

설 극장가 접수는?… 마블의 히어로 vs 강동원의 도주극

2018년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무비부터 코믹, 액션, 판타지 멜로, 호러 엔터테이닝 무비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개봉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황금 연휴 극장가는 그야말로 관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예비관객이 ‘꼭 봐야할 영화’로 마블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히어로를 내세운 ‘블랜 팬서’와 강동원 주연의 ‘골든슬럼버’를 꼽고 있다. 두 영화의 관전포인트를 소개한다.

영화 VS 영화

블랙 팬서 사전예매 신기록 세워
부산 주요 랜드마크 촬영 볼거리
골든슬럼버 권력과 싸우는 드라마
시간에 따른 감정선의 변화 주목

2018년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무비부터 코믹, 액션, 판타지 멜로, 호러 엔터테이닝 무비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개봉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황금 연휴 극장가는 그야말로 관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예비관객이 ‘꼭 봐야할 영화’로 마블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히어로를 내세운 ‘블랜 팬서’와 강동원 주연의 ‘골든슬럼버’를 꼽고 있다. 두 영화의 관전포인트를 소개한다.

◆블랙 팬서

설날 연휴 최고의 기대작은 단연 ‘블랙 팬서’다. 내한과 아시아 프리미어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설날 연휴 최고의 기대작 ‘블랙 팬서’는 개봉 전주 사전 예매량을 10만 장을 넘기며 역대 예매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는 놀라운 기염을 토했다.

‘블랙 팬서’는 와칸다의 국왕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 팬서’ 티찰라(채드윅 보스만)가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와칸다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2018년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터다.

제작 당시 대한민국 부산 로케이션 촬영 및 미국 애틀란타에 대규모 부산 세트 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영화가 전세계 및 대한민국 언론들에게 공개되자 마자 로튼 토마토 100% 지수 및 최고의 극찬들이 쏟아지며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의 첫 포문을 여는 진정한 화제작으로 등극했다.

부산시의 주요 랜드마크에서 촬영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애틀란타 촬영지에 부산의 랜드마크 일부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듯한 대규모 세트를 제작하는 등 부산의 전경을 담아내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마블 스튜디오는 10주년을 맞아 무려 세 편의 영화를 개봉한다. ‘블랙 팬서’는 그 첫 주자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심어 두었으며 역대급 ‘어벤져스’ 군단을 만나기 전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의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하다.

‘블랙 팬서’는 아이언맨 만큼 뛰어난 천재적인 지능과 그를 가뿐히 뛰어넘는 막대한 재력, 캡틴 아메리카에 버금가는 신체 능력을 지닌 히어로다.

다이내믹한 액션과 풍성한 스토리텔링으로 완전히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선보일 ‘블랙 팬서’는 14일 개봉한다.

◆골든슬럼버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 ‘골든슬럼버’는 성실하고 착한 택배기사 김건우(강동원)가 한순간에 대통령 후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싸우는 내용을 그린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평범한 개인의 삶이 조작된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바탕으로 쫓고 쫓기는 가운데,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을 강조해 장르적 구분을 넘나드는 새로운 재미를 창조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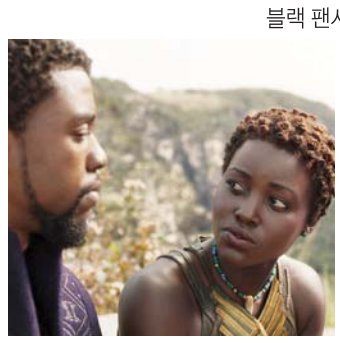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속 고등학교 시절의 순수하고 풋풋했던 기억에 대한 회상을 오가는 독특한 구성이 ‘골든슬럼버’만의 매력.

한 사람을 둘러싼 이미지가 완벽히 가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기술 발달로 불가능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는 2018년 현시대에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흥미를 자아낸다.

올초 ‘1987’에서 진심 어린 연기로 호평받은 강동원을 중심으로 김의성, 한효주, 김성균, 김대명, 윤계상, 유재명 등 대표적 실력파 배우들이 결합해 기대를 높인다.

강동원은 순박한 인간미와 시간에 따른 디테일한 감정선의 변화, 도주 과정에서의 액션 연기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현실적이고 익숙한 공간에서 비롯된 긴장감이 살아있는 폭발·도주씬은 다른 영화와는 차별화된 쾌감을 선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블랙 팬서 스틸컷



골든슬럼버 스틸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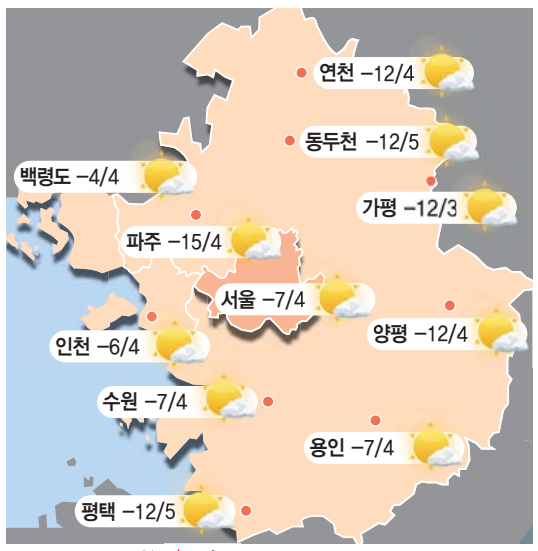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4 | 해짐 / 18:09

2월 13일
음력 : 12월 28일

수도권 날씨
-7~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